### [초안] **스스로 벽을 넘는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20대 초반에 호텔조리학과를 전공하고 제빵을 2~3년 정도 했어요. 너무나도 좋아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새벽 6시에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가장 눈이 빛나던 열정적이던 시기였죠. 그런데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바람에 요리사처럼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갖긴 어려워졌어요.”

“요리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뭘까 고민해봤어요. 영어를 가르쳐보고 싶었죠. 아무리 토익 성적이 좋다고 해도 학력 때문에 영어 선생님이 되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편입을 준비했고 운이 좋게도 서울에 이름이 알려진 대학의 영문학과에 편입했어요. 부모님도 굉장히 만족하던 결과였어요. 제가 계속 공부하길 바라셨거든요. 그렇지만 정작 편입생은 임용고시를 볼 자격을 갖출 수 없더라고요. 편입생은 3학년 과정부터 참여하는데, 1~2학년 때 교육 관련 수업을 미리 들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조건을 갖추기엔 늦은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취직하기 위해 무얼 할까 찾아보다가 방학 동안 국비 지원으로 R을 공부하게 됐어요. 규칙을 지켜서 뭔가를 만드는 건 성격과 잘 맞았어요. 시기적절하게 4차 산업혁명 붐이 불어서, 컴퓨터공학과 인문학이 합쳐진 융합학과가 저희 대학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교수님의 추천으로 ‘인공지능언어공학과'로 대학원을 진학했죠. 졸업 후엔 자연어 처리 전공을 살려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어요.”

“두 군데에서 일했는데, 모두 쓸개같이 쓴 경험이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고 체계가 없었어요. ‘말뭉치를 전처리해서 올려놓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도 대표님께선 지식이 없어서 의견을 못 주셨고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했어요. 또 다른 회사에선 한 명의 봉급을 두 명이 나눠 받기도 했죠. 두 명을 고용하고선 국가에서 1명분으로 주는 지원금을 반씩 줬어요. ‘스타트업이란 이런 곳인가' 싶었죠. 번듯한 회사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크게 미쳐요. 원하는 회사에 가기 위해선 42에서 그리는 완성형 인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많이 고민해요.”

<사진>

“42의 다양한 서브젝트는 경험의 폭을 크게 넓혀줘요. 특히 영감을 주는 과제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뚜렷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쿠버네티스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관리하는 ft\_services가 그랬어요. 엄청난 생산성이 매력적인 부분이예요. 요즘 공부하고 있는 C#과 유니티를 활용한 게임 구현을 예로 들면, 유저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이나 인터페이스 관련된 것 등을 각각 파드에 넣어두고 재활용한다면 게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클러스터도 쿠버네티스로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태프인 탱이 쿠버네티스로 아이맥을 전부 껐다 키고 화면을 바꾸는 걸 보여줬는데 ‘아, 내가 가려는 이 길! 간지가 절대 틀리지 않았다!’ 생각했죠(하하). 데브옵스 쪽으로 나가보고 싶고, 42서울의 시설관리팀에도 지원해보고 싶어요.”

“이곳에서 공부하는 게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등, 이런 전반적인 고민과 행동이 다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선 42서울이 좋은 환경이에요. 이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죠. 동료에게 떠먹여 주듯 알려줘서는 안 되겠지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한 발 내딛게 도와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대면 상황에서 집에서 공부하더라도 누군가에게 DM으로 갑작스럽게 물어볼 수도 있어야 하고, 역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내가 이 정도라니’ 자부심을 가지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알려주면 좋겠어요. 42데이에서 과제 알려주는 동영상을 찍었던 것도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줬죠. 이런저런 계기로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다면, 지식이 고인 곳 없이 흐르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에 있어서 모토 중 하나가 ‘스스로 거짓말하지 말자’예요. 치팅은 거짓말이잖아요. 사람마다 치팅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본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치팅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더라도 이 사람은 왜 코드를 이렇게 짰는지,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는지 고찰해보고 스스로 코드를 짤 수 있어야 해요. 과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냥 구글링해서 나온 대로 썼는데요?’라고 말하는 사람과 코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랑 지식의 깊이가 다르겠죠.”

“눈앞의 자소서를 써야 해서 과제를 깃 클론해서 대충 넘기는 건 벽을 넘지 않고 우회하는 행동 같아요. 문제 앞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 버릇하면, 나중에 회피할 수 없는 정말 큰 벽을 만났을 때는 주저앉아야 하겠죠. 넘는 방법을 모르니까요. 그땐 지나온 시간과 자신을 탓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전에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벽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위기 대신 바람직한 평가 문화가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초창기 카뎃들이 잘하면 좋은 선례, 전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새로 들어온 분들이 ‘42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요. 지금 이 교육과정은 누군가에겐 선망의 대상, 배움의 기회에요. 이런 분들의 기회를 42의 교육과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강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구성원들이 지식이 순환하도록 기여하려는 태도를 갖춰야, 다른 곳들과 차별화되는 좋은 교육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스케치]

**앞선 터닝 포인트들.**

저는 스무살 초반에는 초 중, 말로 얘기하면 될까요? 저는 20대 초반에는 호텔조리학과에서 전공해서 요리를 했어요 저는 호텔조리학과 나와서 원랜 제빵쪽 베이커리에서 2~3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제가 제빵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새벽 6시에 출근인데 출근하려면 첫차타고 가서 밤에 늦게 돌아오고 그런식으로도 일을 많이 했어요. 하는 동안 힘들지 않고 제가 했던 시기중에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시기? 뭔가를 해을 떄 가장 눈이 빛나고 열정적이었던 시기같아요. 요리에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다리를 다쳐서 경력이 중단이 온 시기가 왔어요. 십자 인대가 파열돼서 못걸었어요.

오래 서서 하는 직업인 요리를 하기에는 다리가 녹록치 않고. ㅇㅣ런 쪽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로 좋아하는 건 뭐지. 저는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1년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중반때쯤엔 영어공부하고 회사를 잠깐 다녔다가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이유가, 제가 영어 좋아하는데 영어 계속하고 싶었어요. 결국에 하고 싶었던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에요. 선생님이 되려면 학력이 필요한 거에요. 학원이든 임용을 보든 걸리는게 영어를 잘하지만 학력때문에 잘리는 거에요. 토익 900넘고 해도 항상 학력이 문제였던 거에요. 학력에 발목 걸리니까 학력을 어떻게 좀 해야겠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편입공부를 시작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편입을 시작해서 운이 좋게 좋은 대학의 영문학과에 편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영문학과 가고 싶었는데 서울에 이름 들으면 아는 대학을 가니까, 부모님은 제가 계속 공부하기를 바라셨거든요.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저도 만족감이 높았던 해 같아요.

후반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영문과 졸업해서 보니까. 편입생은 임용고시를 볼 수 없다는 거에요.1~2학년 때 교육관련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편입생은 들을 수 없대요. 그러면 교육 대학원을 또 진학해야 하는 거에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취직을 하려면 뭘 해야할까 생각하니까 방학동안 국비지원을 통해서 R을 배우게 됐어요. 그걸 배우니까 너무 재밌는 거에요. 저는 규칙대로 지켜서 뭔가를 만들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프로그래밍과 성격이 잘 맞았던 거에요. 그때가 하필 또 시기 적절하게 4차 산업혁명이 붐이 일 때였어요. 교수님이 저를 밀어준다고 하셔서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죠. 컴공과 인문이 합쳐진 융합학과가 대학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거기 진학하게 됐고, 인공지능언어공학과 대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자연어 전공쪽이어서 그쪽으로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거에요. 사수도 없고, 후임도 없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걸 풀 스택처럼. 지금으로부터 2년전쯤. 이건 좀 아니다. 사장님께서 CEO겸 CTO를 하는 분이셨어요. 제가 말뭉치를 뭐 이런식으로 해서 서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전처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쭤봐도 사장님은 그런것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거에요. 카운팅을 해서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글자수를 세겠다는 뜻이었는데, 사장님은 있어보이니까 ‘뭐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이렇게 된 거에요. 그것때문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되고 저도 경험이 부족한 사람인데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고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거에요. 그런 것 때문에 반목이 일어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학교에서 교수님이 추천해주셔서 다른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회사는 정말 좋지 않은 회사였던게. 본인이 받은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를 따낸 분이었는데. 1인 스타트업이었어요. 국가관련 프로젝트를 하려면 직원이 몇명 필요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1명 필요한 거였는데, 사장님이 본인 욕심으로 2명을 구한 거에요. 1명분에 대해선 국가지원을 받는데, 1명은 아니잖아요. 본인 사비로 주거나, 회사 수익으로 월급을 주셔야 하는데, 근데 이 분이 국가에서 받은 직원 1명의 월급을 둘을 나눠서 주는 거에요. 한달에 월급 80만원을 받은 거에요. 그 때는 돈이 적은 것보다는 배우겠다는 마음이 커서 돈을 얼마를 주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3개월 다녀보니 80만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되는 거에요. 회사가 1인 스타트업이어서 사무실도 없고, 카페가서 해야하는데. 개인 노트북으로 하면서 커피 비용도 안나오고. 점심도 제공 안해주고. 이건 80만원으론 도저히 안되겠다고 고민하고 있다가 친

**과거의 스타트업 경험. 완성형 인간이 되기 위해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할까 고민.**

되게 회사에 들어가서 겪은 경험이 저는 썼어요. 쓸개같이 썼는데 드는 생각이 이런 회사는 지양해야겠다. 그리고 스타트업가면 이런 일을 결국하는 구나. 체계를 갖춘 번듯한 회사에 가고 싶다면 최종적으로 이너서클을 졸업하고, 42가 생각하기에 완성형인간이 되려면 42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라고 생각한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42에서 귀중한 시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찍먹을 통해 내가 원하는 분야 찾음.**

42와서 다양한 서브젝트가 있잖아요. 이건 대체 왜 배우는 거지 의문이 드는 과제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과제들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경험의 폭을 크게 늘려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GNL, PF는 코딩의 범위내에 있지만, 그 이후로는 서버 넷왓 미니쉘 필로소퍼 CPP 걔속 넓혀지면, 다양한 언어를 찍먹하듯 배우게 되잖아요. 그걸보고 이런 쪽에 구현하는 거라든가 구현을 하는 데 나의 마음가짐들이 나에게 영감을 주는구나.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이런 과제가 몇개 있었어요. 그런 과제를 통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는 느낌. 그렇게 내 길이 뚜렷해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해야하냐는 생각도 있지만 그런 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잘맞는 길을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과제를 딥하게 공부해보는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게

서비스가 동기부여가 참 잘됐어요. 망망대해에 떨어진 느낌이기도 했는데. 좋았던 게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원격으로 관리하고 하는게 뭔가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매력적이었어요. 최근에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강의도 지원금을 통해서 결재했거든요. 30만원 정도 되는. 배울 수록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했을 때, 프로젝트에 전반적인 단계가 있으면 1~4단계 세분화를 시켜서 각각 쿠버네티스 파드에 담아놓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걸 만들 때도 파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해서 조립해서 하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겠구나. 구현하고 싶었지만 실력때문에 못했던 것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같이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도 좀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데브옵스죠? 데브옵스 쪽으로 나가보는게 좋을 것 같단 생각이 서비스를 하면서 들었어요. 최근에는 쿠버네티스와 유니티를 공부하고 있는데, 유니티를 통해서 게임을 구현해보니까. 실시간으로 반영되서 게임을 할 수 있더라고요. cub3d/minirt하면서는 게임이 내 길이 아닌가보다 했는데, 그 이유는 C로 구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C#이랑 유니티로 구현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에요. 유저정보를 가져오는 이런부분, 인터페이스, 몬스터관련된 부분을 세분화해서 쿠버네티스로 저장해두고, 나중에 다른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게임을 도대체 몇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동기부여가 잘 돼요. 여기 클러스터 관리하는 것도 쿠버네티스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VNC라든가. 탱님이 저한테 와서 “아민님 이게 쿠버네티스에요!” 이러면서 커맨드 치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이맥들이 전부다 꺼졌다, 화면 바뀌고. 이렇게 하는게 서비스 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길! 간지가 절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면서 42 지원팀에 내가 지원한다. 이생각 했었죠. 동기부여가 많이 됐어요. 여기 월급만 많이 주시면 넘 감사하죠. 그런데 보니까 24시간 없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주시면 다 제로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42에서 일하게 되면 여러가지 보지 못하는 뒷단의 일도 있겠지만 스탭분들 보시면 학생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조언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런 일을 좋아하니까 만약에 되면 학생들에게 채찍과 당근 찰싹찰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음. 지식의 순환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

. 제방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아가는 방법은 동료평가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제가 저도 평가 시간에 제가 공부한 거 자랑도 하고 상대방도 알아가고. 비대면으로 평가할 때 최대한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게 그것이지 않을까 해서. 이 두개가 평가의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42에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되게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공부가 단순히 CPP에 이건 이거야 그런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 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게 다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선 42가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주는 방법이 동료평가인데 그런게 안되고 이기적으로 공부하면 자멸하는 거죠. 적당한 이기적인 면모도 중요하지만, 이타적인 면모가 여기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람에게 떠먹여주듯이 이거 사실 이거이 글러면서 코드를 던져주는 건 안되겠지만, 공부를 하게끔 발을 한발 내딛어주게끔 돕는 도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라피신에서는 대면 상황에서 누가 잘한대, 하면 가서 물어봤지만 그건 대면 가능해서 그런 것도 잇지만 비대면에선 힘들잖아요. 건너건너 들었는데 아민님이 cpp잘한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아 이거 정정할게요. (아 cpp은 아민!!!) 이거 편집해주세요. 땀나네. 누가 이걸 잘한대, 말했을 때 dm으로 여쭤보기 큰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용기도 존중받아야 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정도라니, 이러면서 그분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알려줄 수 있으면. 그런 문화가 코로나라는 대재난 때문에 있는 선례여도. 집에서 혼자 공부하더라도 같이 여기서 하는 문화가 당연한거니까, 서로 생각하고 거리낌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42데이라고 과제 알려주는 동영상을 찍었잖아요. printf 뽀개기 영상을 찍는 걸 봤는데, 동료들끼리 지식을 순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돌파구같은 느낌? 저 이거 들었는데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디엠도 보낼 수 있기를. 벽을 낮춰주는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도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춰주면, 고인 곳 없이 흐르는 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치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벽을 마주할 때의 자세.**

어쨌든 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치팅은 거짓말이잖아요.(아유 사이다다.) 제가 공부하는 모토중 하나가 스스로 거짓말하면서 공부하지 말자거든요. 내가 남의 코드를 보더라도 이사람은 왜 코드를 이렇게 짰을까 해서 코드 한줄에 대해 고민해보고 원작자처럼 똑같이 짤 수 있는지,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는지. 고찰하는 사람하고 그냥 하는 사람이랑은 궁극적으로 이너써클 다 깼을때 누가 더 완성형이냐고 물었을 때, 지식이 깊이가 다르겠죠. 서버할 때 그냥 구글링으로 이렇게 썼는데요?라고 말하는 것과 이걸 왜 썼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그런 자세, 그런 공부하는 자세를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눈앞에 취직있고 자소서 있고 해서 가려서 과제가 보이지 않아서 과제를 깃클론해서 그냥 대충해서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건 정말 재단적인 문제로 봤을 떄, 저는 좀 경고를 날리시던가.

앞에 벽이 있는 것 같을 때 도와주셔야할 분이 멘토님인데, 그런분이 여기 벽을 넘지말고 우회해서가 샛길도 있어.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저는 항상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떄 항상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회피를 할 수 없는 큰 벽을 만났을 때는 그럼 저는 주저앉아야 하잖아요. 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누굴 원망해야할지 모르겠잖아요. 저는 제가 지나온 이런 시간, 내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다보면 그냥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쯤은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하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자꾸 회피하지 말고.

**전반적인 평가 문화에 대한 바람.**

요즘에 과제를 넘기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건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1기 들이 잘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 기수분들이 선례가 어떤지를 보고 그 선례가 시간이 흐르면 전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반에 잘 잡아놔야 다음에 가시는 분들이 42에서는 저런 문화가 있구나 평가할 때는 저런 자세 생각으로. 뭐랄까요 꿰뚫는 커다란 원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야 하는데, 이런 걸 잘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것들이 선례가 아니라 나쁜 예가 돼서 이렇게 그냥 대충해~ 이렇게 되버리면.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온 보람이 없잖아요. 지원도 많이하셨다는데.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런(대충대충하는) 분들이 강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움에 목말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어떤 선망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다가 그런분들 많으셨어요. 피신할 때는 카뎃 너무 되고 싶어요. 카뎃되면 이런 것도 저런것도 있겠죠? 그런 생각에 들어오셨는데, 카뎃되니까 피시너때가 나았거나 들어오지말걸. 취직을 하러 그냥 아 42는 그냥 안돼안돼 하고 가버리시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잡으려면 재단도 인식을 해야하고, 이게 본인들의 얼굴이잖아요 이미지잖아요. 우리는 재단의 얼굴인데 얼굴이 그러고 있으면 누가 오고 싶겠어요. 지금 당장은 오고싶어 난리지만 졸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분위기가 인터넷상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정보는 계속 노출되고 이면을 보게 되면, 저기 가느니 싸피가는 게 나아, 소마가. 이런 식의 비교의 말이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단도 중요하지만 과제를 먼저 많이 풀고 있는 1~2기 분들이 좋은 자세를 잡고 계속 좋은 예를 만들어주고 공기가 돌듯이 지식이 순환돼야 하는데 그런 마인드로 평가를 받으면 지식이 절대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가표라는 기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애티튜드잖아요. 거기서 애티튜드란 말이 모호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정리하고 서로 좋은 상호작용 지식 순환이 유발돼야 소마, 우테코 이런 데 보다 좋은 교육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녹취]

(하고싶은 얘기 있었어요?) 평가 제대로 하자. 평가자나 피평가자의 태도, 마인드가 어때야 하는가. ulee님이 관련해서 사연을 모으는 걸 봤었어요. 제보하려고 했는데 평가를 많이 햇었는데 하다보니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말 하면 특정인을 꼽는 것 같아서. 누가봐도 얘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민이 이렇게 말했네? 아실테니까. 두루뭉술하게. 평가가 이렇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어서 그런거랑.

그런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치팅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 관해서 개인적인 의견 견해?

(치팅부터 할까요?) 와 갑자기 세다. 다른 말 거두절미하고 아민 치팅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나쁜거죠 무조건 페일이에요 그러고. (이미 한번 크게 얘기된 적 있잖아요.) 다들 PTSD를 일으키는 경험이긴 한데. 치팅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치팅을 하는 사람들은 치팅을 하는 목적? 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블랙홀이 얼마 안남아서 그럴 수 도 있겠지만, 구현을 하고 싶은데 구현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사연들어보면 각자의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치팅을 대체, 부정적이 단어잖아요. 부정적인 그런걸 어떻게 내 실력에 도움이 되게 공부를 해야 할까? 그런거?

저도 비전공자라 잘 못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남의 코드를 많이 보는데. 참조인지 참고인지 카피페이스트인지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각자의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이건 결국 우리가 혼자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에 도움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의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참조는 저는 그건 치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 본인의 실력이 향상되면 참조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교. 내가 너무 예민한 걸 얘기하나?

과제가 갈수록 뭘 해야하는지에 대해 주는 내용이 점점 불확실하게 서술이 돼있고. 그런 문제가 저는 약간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뭘할지 몰라서 치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야기시키는 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서브젝트를 설명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써놓고 뭐를 원하고 뭘 배워야 하는지. 선생님이 없으니까. 동료한테 물어보면 좋겠지만 동료도 사실 과제를 해결했다는 결과물만 얘기해주지. 이걸하면서 너가 프엪을 구현하면 이런걸 배울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정보를 폭넓게 찾아보고, 아 내가 포인터 배열을 다루는 게 부족하네. 이차원 배열 잘 모르겠어 그러면 더 구멍을 매우면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것만 구현하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치팅을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서비스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다.) 서비스 과제가 제일 그런 것 같은데. 그건 깃을 통해 남의 코드를 봐도 이해가 안돼요. 내가 뭘하는 거지 이런 의문점만 남으니까. 저는 과제 평가할 때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과제를 딥하게 알아야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잠깐 스쳐가는 정도로만 알고 평가를 받고 싶은데. 자기한테 왜 딥하게 질문하시냐. 이렇게 반문을 들을 적 있어요. 사람의 개인적인 스타일 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구글링하면 나오잖아요. 답이. 제대로 질문을 검색했다면? 문제는 그걸 통해서 궁금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 물음표를 달아야 하는데, 닷 . 끝나는 느낌으로 과제를 진행하면 평가하는 분은 치팅인가?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평가를 할 때 서로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했던 과제, 푸셨겠지만 모듈에서 원하는, 내가 배웠으면 하는 스킬 이론이 있잖아요. 그런 걸 아우르는 내용의 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키워드로 잡아서 제가 모르는 것까지 정리를 해뒀어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해할 때도 좋고 코드를 구현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왜 참조값으로 보내야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설명을 해드릴떼ㅐ도 서두에 설명드릴때 제가 평가를 당신에게 받으면 당신도 cpp 에서 이부분은 어디서 들어봄직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평가를 받겠다. 그러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되게 괜찮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제방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아가는 방법은 동료평가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제가 저도 평가 시간에 제가 공부한 거 자랑도 하고 상대방도 알아가고. 비대면으로 평가할 때 최대한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게 그것이지 않을까 해서. 이 두개가 평가의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42들어오게 된 동기보단 그 전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고 싶어 거든요. 저도 나이가 어린 편이 아니라서 여러 일을 해봤거든요. 전환점이 많았거든요. 예전에 이그나이트에서 홍영택님이 발표하신 걸 보면 영택님도 확 굴곡이 많으셨잖아요. 인도네시아도 다녀오고 제주도에서 온 청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몇가지 있는데, 터닝포인트에서 내가 느꼈던 것, 지금의 아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13:00 저는 스무살 초반에는 초 중, 말로 얘기하면 될까요? 저는 20대 초반에는 호텔조리학과에서 전공해서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자취요리를 많이..) 그건 남자친구가 자취를 해서. 제가 요리 잘하니까. 남자친구는 요리를 정말 못해요.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연성하듯이 요리를 한단 말이에요? 끔찍한 요리가 나온단 말이죠. 제 생일에도 탕수육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탕수육인지 지옥에서 기어올라온건지. 결국 제가 제 생일상을 제가 차려먹고, 너무 행복하다 박수 치고 그랬는데. 저는 호텔조리학과 나와서 원랜 제빵쪽 베이커리에서 2~3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제가 제빵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새벽 6시에 출근인데 출근하려면 첫차타고 가서 밤에 늦게 돌아오고 그런식으로도 일을 많이 했어요. 하는 동안 힘들지 않고 제가 했던 시기중에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시기? 뭔가를 해을 떄 가장 눈이 빛나고 열정적이었던 시기같아요. 요리에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다리를 다쳐서 경력이 중단이 온 시기가 왔어요. 십자 인대가 파열돼서 못걸었어요. 그때 살도 찌고 그래서 의사선생님께서 살도 빼시고 운동도 하세요 해서. 그때부터 180도 바뀌어서 새벽수영 나가서 1년 재활치료해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16:00 다리를 다치는 동안 아무것도 안할 수 없잖아요. 오래 서서 하는 직업인 요리를 하기에는 다리가 녹록치 않고. ㅇㅣ런 쪽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로 좋아하는 건 뭐지. 저는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1년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중반때쯤엔 영어공부하고 회사를 잠깐 다녔다가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이유가, 제가 영어 좋아하는데 영어 계속하고 싶었어요. 결국에 하고 싶었던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에요. 선생님이 되려면 학력이 필요한 거에요. 학원이든 임용을 보든 걸리는게 영어를 잘하지만 학력때문에 잘리는 거에요. 토익 900넘고 해도 항상 학력이 문제였던 거에요. 학력에 발목 걸리니까 학력을 어떻게 좀 해야겠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편입공부를 시작했어요. 회사는 그냥 영업직. 가벼운 마음으로 다녔고. 회사를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편입을 시작해서 운이 좋게 좋은 대학의 영문학과에 편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영문학과 가고 싶었는데 서울에 이름 들으면 아는 대학을 가니까, 부모님은 제가 계속 공부하기를 바라셨거든요.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저도 만족감이 높았던 해 같아요.

후반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영문과 졸업해서 보니까. 편입생은 임용고시를 볼 수 없다는 거에요.1~2학년 때 교육관련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편입생은 들을 수 없대요. 그러면 교육 대학원을 또 진학해야 하는 거에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취직을 하려면 뭘 해야할까 생각하니까 방학동안 국비지원을 통해서 R을 배우게 됐어요. 그걸 배우니까 너무 재밌는 거에요. 저는 규칙대로 지켜서 뭔가를 만들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프로그래밍과 성격이 잘 맞았던 거에요. 그때가 하필 또 시기 적절하게 4차 산업혁명이 붐이 일 때였어요. 교수님이 저를 밀어준다고 하셔서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죠. 컴공과 인문이 합쳐진 융합학과가 대학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거기 진학하게 됐고, 인공지능언어공학과 대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말쯤 터닝포인트는 대학원에 진학한 거였어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비전공자이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거에요. 프로그래밍 문법을 잘 모르는데 프로젝트는 큰게 들어오니까. 그것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고 어찌저찌해서 2년이 지나서, 논문쓰고 해서 학교는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느끼기에 기초가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갈증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에요. 다른 전공자 친구들과 비슷하게 가려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4년동안 컴공한 사람과 갑자기 2년 한 저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까 해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죠. 일을 했는데. 자연어 전공쪽이어서 그쪽으로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거에요. 사수도 없고, 후임도 없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걸 풀 스택처럼. 지금으로부터 2년전쯤. 이건 좀 아니다. 사장님께서 CEO겸 CTO를 하는 분이셨어요. 제가 말뭉치를 뭐 이런식으로 해서 서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전처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쭤봐도 사장님은 그런것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거에요. 카운팅을 해서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글자수를 세겠다는 뜻이었는데, 사장님은 있어보이니까 ‘뭐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이렇게 된 거에요. 그것때문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되고 저도 경험이 부족한 사람인데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고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거에요. 그런 것 때문에 반목이 일어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학교에서 교수님이 추천해주셔서 다른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회사는 정말 좋지 않은 회사였던게. 본인이 받은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를 따낸 분이었는데. 1인 스타트업이었어요. 국가관련 프로젝트를 하려면 직원이 몇명 필요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1명 필요한 거였는데, 사장님이 본인 욕심으로 2명을 구한 거에요. 1명분에 대해선 국가지원을 받는데, 1명은 아니잖아요. 본인 사비로 주거나, 회사 수익으로 월급을 주셔야 하는데, 근데 이 분이 국가에서 받은 직원 1명의 월급을 둘을 나눠서 주는 거에요. 한달에 월급 80만원을 받은 거에요. 그 때는 돈이 적은 것보다는 배우겠다는 마음이 커서 돈을 얼마를 주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3개월 다녀보니 80만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되는 거에요. 회사가 1인 스타트업이어서 사무실도 없고, 카페가서 해야하는데. 개인 노트북으로 하면서 커피 비용도 안나오고. 점심도 제공 안해주고. 이건 80만원으론 도저히 안되겠다고 고민하고 있다가 친구가 재작년 12월쯤에 42서울을 소개시켜준 거에요. 42서울 이런데가 있는데 알아보고 괜찮으면 해봐. 제가 봤을 때 42서울에서 지향하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이런 IT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교육법이 저 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42서울을 지원해서 들어오게 됐죠. 이게 지금의 아민이 있기까지 여러가지 터닝 포인트… 되게 회사에 들어가서 겪은 경험이 저는 썼어요. 쓸개같이 썼는데 드는 생각이 이런 회사는 지양해야겠다. 그리고 스타트업가면 이런 일을 결국하는 구나. 체계를 갖춘 번듯한 회사에 가고 싶다면 최종적으로 이너서클을 졸업하고, 42가 생각하기에 완성형인간이 되려면 42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라고 생각한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25:40 (AI, 자연어는 그럼 관심이 없어요 이제?) 관심은 여전히 있긴 해요. AI, 인공지능 분야는 학력이 석박사부터 시작이잖아요. 일단 저는 자격이 되니까 생각은 있지만 아직까진 우리나라에선 자연어처리관련해서 배우고싶다면 정말 큰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정도를 들어가야 이 일을 프로세스 맞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생각이 없어졌고요. (큰 곳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좋죠. 그런데 42와서 다양한 서브젝트가 있잖아요. 이건 대체 왜 배우는 거지 의문이 드는 과제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과제들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경험의 폭을 크게 늘려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GNL, PF는 코딩의 범위내에 있지만, 그 이후로는 서버 넷왓 미니쉘 필로소퍼 CPP 걔속 넓혀지면, 다양한 언어를 찍먹하듯 배우게 되잖아요. 그걸보고 이런 쪽에 구현하는 거라든가 구현을 하는 데 나의 마음가짐들이 나에게 영감을 주는구나.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이런 과제가 몇개 있었어요. 그런 과제를 통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는 느낌. 그렇게 내 길이 뚜렷해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해야하냐는 생각도 있지만 그런 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잘맞는 길을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과제를 딥하게 공부해보는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게, 결국엔 어디선가 듣게될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하면 나느 그 과제 통과했는데 과연 자랑스러운 100점인지 얼룩덜룩한 100점인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인생의 굴곡이 있었잖아요. 결국엔 내가 원하는, 이런식으로 공부할 때 시너지가 잘 일더라. 하는 공부방법을 터득한 거니까. 42에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되게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공부가 단순히 CPP에 이건 이거야 그런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 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게 다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선 42가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00 (동기부여되는 과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 서비스가 동기부여가 참 잘됐어요. 망망대해에 떨어진 느낌이기도 했는데. 좋았던 게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원격으로 관리하고 하는게 뭔가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매력적이었어요. 최근에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강의도 지원금을 통해서 결재했거든요. 30만원 정도 되는. 배울 수록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했을 때, 프로젝트에 전반적인 단계가 있으면 1~4단계 세분화를 시켜서 각각 쿠버네티스 파드에 담아놓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걸 만들 때도 파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해서 조립해서 하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겠구나. 구현하고 싶었지만 실력때문에 못했던 것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같이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도 좀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데브옵스죠? 데브옵스 쪽으로 나가보는게 좋을 것 같단 생각이 서비스를 하면서 들었어요. 최근에는 쿠버네티스와 유니티를 공부하고 있는데, 유니티를 통해서 게임을 구현해보니까. 실시간으로 반영되서 게임을 할 수 있더라고요. cub3d/minirt하면서는 게임이 내 길이 아닌가보다 했는데, 그 이유는 C로 구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C#이랑 유니티로 구현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에요. 유저정보를 가져오는 이런부분, 인터페이스, 몬스터관련된 부분을 세분화해서 쿠버네티스로 저장해두고, 나중에 다른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게임을 도대체 몇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동기부여가 잘 돼요. 여기 클러스터 관리하는 것도 쿠버네티스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VNC라든가. 탱님이 저한테 와서 “아민님 이게 쿠버네티스에요!” 이러면서 커맨드 치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이맥들이 전부다 꺼졌다, 화면 바뀌고. 이렇게 하는게 서비스 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길! 간지가 절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면서 42 지원팀에 내가 지원한다. 이생각 했었죠. 동기부여가 많이 됐어요. 여기 월급만 많이 주시면 넘 감사하죠. 그런데 보니까 24시간 없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주시면 다 제로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42에서 일하게 되면 여러가지 보지 못하는 뒷단의 일도 있겠지만 스탭분들 보시면 학생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조언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런 일을 좋아하니까 만약에 되면 학생들에게 채찍과 당근 찰싹찰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이건 꼭써야겠네요. 스탭분들 보시라고.) 물론 과제도.과제는 별개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34:30 요즘에 과제를 넘기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건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1기 들이 잘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 기수분들이 선례가 어떤지를 보고 그 선례가 시간이 흐르면 전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반에 잘 잡아놔야 다음에 가시는 분들이 42에서는 저런 문화가 있구나 평가할 때는 저런 자세 생각으로. 뭐랄까요 꿰뚫는 커다란 원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야 하는데, 이런 걸 잘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것들이 선례가 아니라 나쁜 예가 돼서 이렇게 그냥 대충해~ 이렇게 되버리면.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온 보람이 없잖아요. 지원도 많이하셨다는데.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런(대충대충하는) 분들이 강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움에 목말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어떤 선망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다가 그런분들 많으셨어요. 피신할 때는 카뎃 너무 되고 싶어요. 카뎃되면 이런 것도 저런것도 있겠죠? 그런 생각에 들어오셨는데, 카뎃되니까 피시너때가 나았거나 들어오지말걸. 취직을 하러 그냥 아 42는 그냥 안돼안돼 하고 가버리시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잡으려면 재단도 인식을 해야하고, 이게 본인들의 얼굴이잖아요 이미지잖아요. 우리는 재단의 얼굴인데 얼굴이 그러고 있으면 누가 오고 싶겠어요. 지금 당장은 오고싶어 난리지만 졸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분위기가 인터넷상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정보는 계속 노출되고 이면을 보게 되면, 저기 가느니 싸피가는 게 나아, 소마가. 이런 식의 비교의 말이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단도 중요하지만 과제를 먼저 많이 풀고 있는 1~2기 분들이 좋은 자세를 잡고 계속 좋은 예를 만들어주고 공기가 돌듯이 지식이 순환돼야 하는데 그런 마인드로 평가를 받으면 지식이 절대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가표라는 기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애티튜드잖아요. 거기서 애티튜드란 말이 모호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정리하고 서로 좋은 상호작용 지식 순환이 유발돼야 소마, 우테코 이런 데 보다 좋은 교육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8:35 (다른 기수는 모르겠는데 1기는 유난히 두희하자는 그런 말도 많았고, 부트캠프로 눈 돌리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실망했냐 생각해보면, 잘하는 사람은 눈에 띄어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양극단을 줄여주는 게 동료평가잖아요. 딱 하난데, 그게 제대로 안되면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겠죠. 어딜 가도 잘할거에요.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주는 방법이 동료평가인데 그런게 안되고 이기적으로 공부하면 자멸하는 거죠. 적당한 이기적인 면모도 중요하지만, 이타적인 면모가 여기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람에게 떠먹여주듯이 이거 사실 이거이 글러면서 코드를 던져주는 건 안되겠지만, 공부를 하게끔 발을 한발 내딛어주게끔 돕는 도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라피신에서는 대면 상황에서 누가 잘한대, 하면 가서 물어봤지만 그건 대면 가능해서 그런 것도 잇지만 비대면에선 힘들잖아요. 건너건너 들었는데 아민님이 cpp잘한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아 이거 정정할게요. (아 cpp은 아민!!!) 이거 편집해주세요. 땀나네. 누가 이걸 잘한대, 말했을 때 dm으로 여쭤보기 큰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용기도 존중받아야 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정도라니, 이러면서 그분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알려줄 수 있으면. 그런 문화가 코로나라는 대재난 때문에 있는 선례여도. 집에서 혼자 공부하더라도 같이 여기서 하는 문화가 당연한거니까, 서로 생각하고 거리낌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42데이라고 과제 알려주는 동영상을 찍었잖아요. printf 뽀개기 영상을 찍는 걸 봤는데, 동료들끼리 지식을 순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돌파구같은 느낌? 저 이거 들었는데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디엠도 보낼 수 있기를. 벽을 낮춰주는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도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춰주면, 고인 곳 없이 흐르는 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42:45 (간만에 42의 철학, 평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환해지네요. 대충하자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이건 대충 넘기고 취업과 관련된 것을 집중해야 한다, 처음엔 그게 불편했는 데 계속 듣다보면 그래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저도 그 얘기 들어봤어요. 멘토님이 이 과제는 깃클론해서 내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깃클론하니까 누군지 알겠는데?) 걍 치팅해 내, 이렇게 말씀하신느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약간 격하게 말해도 될까요, 그건 42를 망치는 암적인 존재인거에요. 그건 정말 미꾸라지 정도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를 헤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랑 의견이 똑같아요 - jwon) 저는 멘토님이라면 이건 당연히 열심히 해야하는 거고 네가 공부를 하면서 남는 에너지가 있따면 부가적인 걸 해라,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멘토님들마다 이상과 아이디어가 다른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상과 맞는 친구들이 있어서 하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42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이데아는 이 과제를 열심히 하라고 만들어줬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이 서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부정하고 취업 준비 야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학생들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좀더 나은 사람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런 마음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딜 가서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인성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46:10 어쨌든 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치팅은 거짓말이잖아요.(아유 사이다다.) 제가 공부하는 모토중 하나가 스스로 거짓말하면서 공부하지 말자거든요. 내가 남의 코드를 보더라도 이사람은 왜 코드를 이렇게 짰을까 해서 코드 한줄에 대해 고민해보고 원작자처럼 똑같이 짤 수 있는지,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는지. 고찰하는 사람하고 그냥 하는 사람이랑은 궁극적으로 이너써클 다 깼을때 누가 더 완성형이냐고 물었을 때, 지식이 깊이가 다르겠죠. 서버할 때 그냥 구글링으로 이렇게 썼는데요?라고 말하는 것과 이걸 왜 썼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그런 자세, 그런 공부하는 자세를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눈앞에 취직있고 자소서 있고 해서 가려서 과제가 보이지 않아서 과제를 깃클론해서 그냥 대충해서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건 정말 재단적인 문제로 봤을 떄, 저는 좀 경고를 날리시던가. 아니면 하지마셔라 제재를 하시던가. 이건 재단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잘못된 메세지를 주잖아요. 멘토님도 이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 중 하난데.) 멘토가 저희보다 많은 시간을 다양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런게 있다, 한번 해보렴. 저희에게 뭔가 설명...서가 있듯이 그런 총집합인거죠. 제가 불필요한 뭔가를 했을 때 교정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헬퍼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 생각에 지배력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생들은 당연히 따르겠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따르지 않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저는 그럼 취직을 못하고 블랙홀로 떠나가는 히치하이커가 되는 건지.. 그런 생각도 하는데. 물론 내 앞가림 내가 하는 거지만. 앞에 벽이 있는 것 같을 때 도와주셔야할 분이 멘토님인데, 그런분이 여기 벽을 넘지말고 우회해서가 샛길도 있어.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저는 항상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떄 항상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회피를 할 수 없는 큰 벽을 만났을 때는 그럼 저는 주저앉아야 하잖아요. 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누굴 원망해야할지 모르겠잖아요. 저는 제가 지나온 이런 시간, 내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다보면 그냥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쯤은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하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자꾸 회피하지 말고.

(멘토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기로. 일반적인 트랜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타겟팅을 하던 안하든 이말을 듣고 찔려하는 사람은 찔릴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요. 당당하다면 제 이야기를 보고 기분이 나쁘지 않겠죠. 께림찍하고 멜랑꼴리하다? 그건 그분의 생각에 맡길게요. (여기 핫플 예상합니다.하하)

혹시 이때까지 했던 인터뷰이중에 세게 말했나요? (42에서 민감할 순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있었고.) (이런 얘길 들어봐야 사람들도 생각해보게 될거잖아요. 대충하자는 얘기를 자꾸 듣다보면 그렇게 하게 된다고요.)

52:00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생각.